

이성해 대광위원장, “광역교통대책… 국민에게 꼭 필요한 광역교통시설 중심으로 우선 투자되어야”

- 23일 정책간담회에서 수도권 남부권 4개 지역 광역교통 개선과제 논의 -

□ 이성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6월 23일(금)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과천의왕사업본부에서 광역교통 개선대책 추진현황 점검 및 광역교통 관련 지역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수도권 남부권 광역교통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참석자: 과천, 군포, 안양, 의왕,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과천도시공사

□ 이 위원장은 간담회를 시작하면서, “과천시 내에는 지식정보타운이나, 중형 규모의 과천지구 공공주택사업이 진행 중이며, 과천시 인접지역에 신도시 수준의 의왕·군포·안산 지구가 계획되어 있어 장래 급격한 인구 증가가 예상된다”면서,

○ “특히, 과천시는 수원·화성 등 경기 남부권에서 사당 등 서울로 진입하는 관문 역할을 하는 지역으로 현재도 출퇴근 시 극심한 교통 정체를 겪고 있어 광역교통 불편에 대한 우려가 높은 지역인 만큼,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 이 위원장은 LH 관계자로부터 과천 지식정보타운 및 과천지구 광역교통 개선대책 추진현황과 의왕·군포·안산지구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방향성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투입될 수 있는 재원이 한정적인 만큼, 광역교통 개선 효과가 높으며, 국민에게 가장 필요한 시설에 대해 보다 투자가 집중될 필요가 있다”면서,

○ “관계 지자체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의왕·군포·안산지구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해 달라”라고 당부하였다.

□ 이어서 각 지자체별 광역교통 현안 및 건의사항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이 위원장은 “각 지자체에서 인지하고 있는 광역교통 문제는 유사하나, 해결 대안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면서,

○ “수도권의 교통 혼잡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대책은 결국은 대중교통이 될 수밖에 없는 만큼, 대중교통 중심으로 대안을 고민해 달라”라고 강조하였다.

- 마지막으로 이 위원장은 “국민이 원하는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세우는 것만큼이나 약속된 시점에 약속된 광역교통시설을 공급하는 이행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기존 지구 및 3기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 대책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하면서 지연 또는 지연 우려가 있는 사업은 별도 관리할 계획인 만큼, 이러한 정부 방침을 충분히 유념하여 광역교통 업무에 임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2023. 6. 23.

국토교통부 대변인